

11 · 12월호 화보로 보는

KAIT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회원사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한

2007 KAITcup 축구대회 16강 1 · 2차전을 지난 11월 3, 4일 양일간 수원월드컵경기장(연습구장)에서 개최했다.



오늘 열심히 싸워 봅시다!



신세계I&C 힘내자!



몰렉스 파이팅~!

KTF, LG텔레콤, SK C&C, 한전KDN(주) 등이 8강 토너먼트 티켓을 거머쥐었다.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짐에 따라 강호들끼리의 맞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8강 대진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서울통신기술과 KTF의 대결이다.



서울통신기술 선수의 날렵한 몸놀림



헤딩슛~



앗 실수!!!!



유후.. 닥쟁이다..



다리 찢어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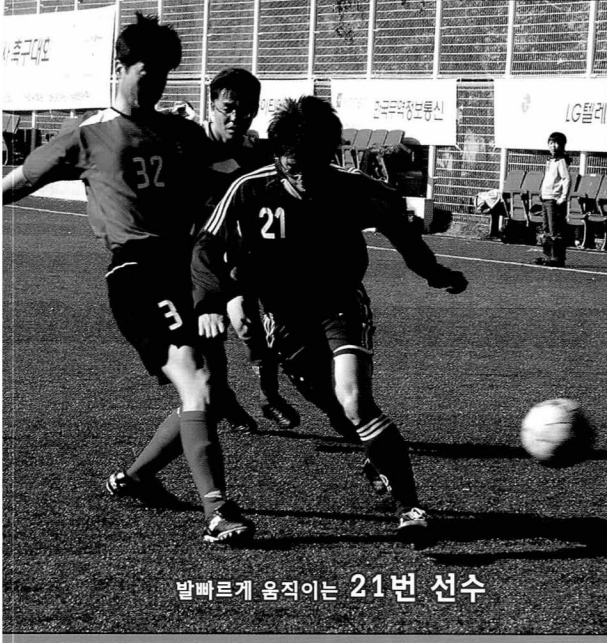


막아야 하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들은 16강에서 각각 6대 1, 8대 0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며 8강에 진출한 팀으로, 헤트트리를 기록한 선수를 보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2차전에서 서울통신기술의 김정렬 선수와 KTF의 안형진 선수는 각각 5골, 3골을 선보여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고, 특히 이 두 선수들이 벌이는 득점왕 경쟁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21번 선수



개인기 한 번 보실래요?



공이 지나간 자리는?



약다리 권범~



철벽같은 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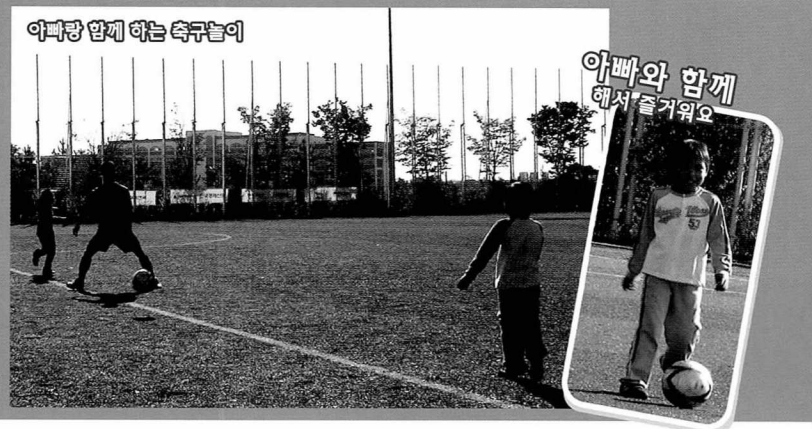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란 말이야~

이 날 행사에는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만이 아닌 선수들의 가족들이 함께 해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경기 종료 후에는 승부를 벌였던 상대팀과 함께 회식자리를 갖는 등 승패를 떠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KAIT 회원사가 모두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8강에는 ▲서울통신기술(이하 가나다순) ▲신세계&C ▲SK C&C ▲LG텔레콤 ▲온세텔레콤 ▲KTF ▲한국물렉스 ▲한전KDN 이 올랐고, 오는 11월 10일(토)에는 8강전이, 11일(일)에는 4강전과 함께 KAIT팀과 수원시청팀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결승전은 17일(토)에 개최된다.



아빠랑 함께 하는 축구놀이

아빠와 함께 해서 즐거워요